

얼마 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갤럽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5.9%, 보험료 부담의 용의가 있다는 응답이 84.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72.4%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것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떤 제도인 만큼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호의 '정책과 쟁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직전인 지난 6월에 개최되었던 제 7회 심평포럼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에서의 요양병원의 역할과 과제'의 발제문과 토론문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셨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선우덕연구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위원의 글과 토론문을 함께 게재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홍기부장의 발제부분은 심평포럼집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HIRA 연구'에서는 심평원의 연구인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화'를 게재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적용 일반의약품 복합제 중 24개 약효군의 727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동 연구는 이들 약효군에 대한 지출금액의 변화와 성분별 처방형태의 변화를 검토한 것입니다. 지면 관계상 연구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정책 시행의 전후 현황을 비교하기에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슈브리핑'에서는 지난 6월에 개최되었던 '영국 NICE 초청 국제심포지엄'의 내용을 소개하고 7월부터 시행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시범사업'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NICE는 영국에서 임상 의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십년 전에 만들어진 기관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심평원 및 국내의 석학들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동향'에서는 '일본의 2008년 2/4분기 건강보험제도 동향'을 비롯하여 '약가 참조가격제의 최근 해외 동향' 등 총 다섯 가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진료경향분석'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에 대한 정부사업의 확대에 급증하는 병원/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현황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HIRA 정책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장

정 형 선